

명상문화 제자리 찾기 “아직은...”

웰빙바람을 타고 각광받던 '명상문화'가 표류하고 있다.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는 여전히 '명상'에 힘을 실는 추세지만, 명상문화의 내부를 뜯어보면 지도자와 수련 프로그램은 둘러싼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명상 수련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요가'의 경우 전국 곳곳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뿌리내리고 있지만,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요가의 핵심인 호흡 및 명상에 관한 최소한의 교육 없이 체조만 지도하는 요가원이 대다수이고, 요가원 운영이 '유망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자격증이 요가수련원을 개원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 상당수 요가원 체조지도에만 그쳐

명상 센터도 마찬가지다. 국내 명상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모 센터의 경우만 해도 수준 이하의 강사를 연이어 개설하여 논쟁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마련한 8주 과정의 '웰빙 생활수련법' 강좌의 경우 '웰빙 호흡하기' '웰빙 동물되기' '웰빙 잡자기' '웰빙 위로' 등의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15만원의 참가비를 요구해 '강의를 위한 강의'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명상지도자의 자질 문제와 관련이 깊다. 상당수 요가수련원의 경우 200만원을 내고 3개월간의 수련 시간만 때우면 요가지도자 자격증을 무리없이 발급해준다. 초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요가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존재했으나, 93년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종목에서 '요가'가 누락되면서 국가 차원의 자격증 규제제도가 사라졌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일반 요가원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 등이 무차별적으로 발급되고 있다.



한 단체의 요가 지도자 자격 심사현장(사진은 기사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 없음)

교육 프로그램 부실·지도자 자질문제 심각 상품 남발, 관리·감독 기관없어 규제 어려워

● “국가나 대학서 지도자코스 고안해야”

명상지도자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명상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다 같은 범주의 명상 안에서도 '정통'을 부르짖는 주장이 난립해 특별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명상지도에 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인도에서 간단한 수련과정만 이수하고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건 채 명상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국내 명상계 현실이다. 특히 이들 명상지도자들의 프로그램을 판단·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

에,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의 제도권으로 여과없이 유입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실을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인터넷 사이트 명상나라 손민규 대표는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명상지도자 정규코스를 고안해 객관화된 커리큘럼을 이수한 자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명상학·요가치료학 전공 학생들에 한해 명상지도자 자격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다.

● 정부 명상계 내부 자율질서 유도할 때

그러나 국가 차원의 규제는 쉽지 않을 듯하다. 문화관광부 스포츠여가산업과 유병한 과장은 “공인 요가지도자 자격증 마련 등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규제의 틀을 세우는 것은 시대 흐름에서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회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의 망을 씌우지 않고 명상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명상문화를 관리·감독할 만한 어떤 기관이나 단체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다. 서울시청 체육청소년과 이용규 과장은 “법령이나 통제부서 등의 제도가 사회현상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swhy@buddhapia.com



선의 세계 21세기

돈수(頓修)와 점수(漸修)-2

돈수(頓修)라 하면 말 그대로 하면 단박에 뉘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단박에 뉘는 방법이 특별히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본래(本體), 즉 모든 중생이 본래 깨쳐 있고 본래 부처님이라는 이치를 강조하는 말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님이므로, 수행을 해서 깨침으로써 비로소 성불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다. 깨달음, 성불은 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각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오래전에 언급한 적이 있듯이, '본래'라는 말의 이중적인 뜻 중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진다. 중생이 곧 부처이다, 네가 그걸 알건 모르건 아무튼 너는 부처다, 더 이상 아무 얘기할 것 없다. 이처럼 '본래 그렇다'는 집단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돈오돈수론이다.

한편으로, 본래는 그렇지만 지금

설명이 되었다. <육조단경>에 “무엇을 가지고 점(漸)이니 돈(頓)이니 하는가? 진리는 오직 한가지이나 그걸 보는 것이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보는 게 더디면 점이라 하고 보는 게 빠르면 돈이라 한다. 진리에는 점치니 단박이니 하는 게 없으나, 사람에게서는 영리함과 우둔함이 있는 까닭에 점이니 돈이니 하는 것이다.”라 한 것이다. <육조단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진리에는 돈(頓)이니 점(漸)이니 하는 게 없다. 그러나 사람은 영리할 수도 있고 우둔할 수도 있어, 어리석으면 점차 알아가지만 깨친 이는 단박에 뉘는다”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박에 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던 말인가? “깨친 이는 단박에 뉘는다.”고 했듯이, 돈수(頓修)할 정도로 영리한 사람은 깨친 이뿐이다. 누차 언급했듯

모든 중생은 본래 깨쳐있는 부처 본각 전제로 어떻게 수행할까 논의

은 아니다. 또는 본래 그런 줄을 모르고 있다는 쪽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에서 비로소 실제 수행론이 나온다. 그런 실제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어차피 점수론(漸修論) 수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뉘어나가 언젠가 단박에 깨친다는 식으로 본다면 점수돈오(漸修頓悟)라 해야 한다. 그런데 점수돈오가 아니라 돈오점수라고 한 것은 여기에 서도 돈오돈수와 마찬가지로 본각의 이치를 전제로 걸어놓았다는 뜻이다. 본각의 이치에 입각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돈오점수론이다.

그러니까 돈오돈수론이건 돈오점수론이건 선종에서 말하는 한은 다 본각을 전제로 한다. 돈오돈수론은 본각만 말하지는 것이고 돈오점수론은 본각을 전제로 하되 점수를 말하고자 한다. 양자의 대비는 전통적으로는 흔히 근기(根機)의 차이로

이 돈수라 하면 본각이라는 진상을 깨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범부 중에 영리한 이와 우둔한 이와 따로 있어 수행하는 방식이 단박과 점차로 다르다는 말로 보기는 어렵다. 본각 그 자체만으로 보면 돈수지만 범부의 현실에서는 점수를 논할 수밖에 없다.

진실 스님이 말했듯이, “제 마음이 바로 참 부처이며 제 성품이 바로 참 법임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려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구하려 하면서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며,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있다 하고 본성 밖에 법이 있다 생각하고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하는” 이를, 즉 “어리석음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본각, 돈오, 돈수를 들이민다.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본래 깨끗하기를 빛 하러 수고롭게 억지로 수행하라?”고 하면서 무애자재행(無碍自在行)을 방자하며 노닥거리는 이들은 점수의 처방을 가지고 질타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요가명상학과 개설

12월6~15일 신입생 모집

원광디지털대학교(총장 성재환, www.wdu.ac.kr)가 국내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요가명상학과를 개설하고 제1회 신입생을 모집한다.

4년제 대학 학부과정으로는 처음으로 설립된 원광디지털대 요가명상학과 요가학개론,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요가 사상을 비롯해 요가 심리학, 요가 생리학, 일반 해부학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강의는 국내외 요가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하는 실습과 이론강의로 이뤄진다. 요가로 명성이 높은 인도델리대학의 찬드라 부산 싱(Chandra Bhushan Singh) 교수, 베나레스힌두대학의 까말라카르(Kamalakar Mishra) 교수, 세계 최초의 요가대학인 비하르 요가대학의 하리 샹카르 심(Hari Shankar Singh) 교수 등을 비롯해 7명이 맡게 된다.

또 온라인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강의 후에 실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요가원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광대도 부설 교육센터는 부천, 광명, 익산, 전주, 광주, 부산 등 6곳이 있으며 이밖에도 전국 20여 곳의 요가원이 실습장소를 지원하고 있다. 강의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12월 6일부터 가능하다. 특별전형기간인 12월 6~15일에 접수하는 학생에게는 입학료 10만원이 면제된다. 원광디지털대 요가명상학과 서준순 교수는 “생활 속에서 자기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2)897-2854 이은비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밤은길 사바타 센터

전화주선은 본래는 언제든 보시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월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명동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acenter.co.kr
E-mail: heegyunwiz@hanmail.net

불자를 위한 보험①

49재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만약 돌아가신다고 가정해 보면,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절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입예시 1

- 계 약 자: 현수 스님 (45세, 비구)
- 피보험자: 현수 스님 (45세, 비구)
- 주보험료: 1,000 만원 (월보험료: 44,500원, 10년납)
- 가입이유: 대비 비용

가입예시 2

- 계 약 자: 김미자 (59세, 보살)
- 피보험자: 김미자 (59세, 보살)
- 주보험료: 1,000 만원 (월보험료: 53,500원, 10년납)
- 사망시 수익자: 관음사
- 가입이유: 주지스님께 사다림과 49재 부탁

가입예시 3

- 계 약 자: 지장암
- 피보험자: 혜광 스님 (64세, 비구니)
- 주보험료: 1,000만원 (월보험료: 112,300원, 5년납)
- 사망시 수익자: 지장암
- 가입이유: 은사스님 대비와 49재 준비

※ 현재 충남 금산 서대산 일불사 대비

문의: 1544-0108 야단법석 한국보림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기 대부분 단순회 화상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기존의 음향 시스템에서 스피커만 하나만 교체 하여도 음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에 드립니다.

음향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

1. 날마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아도 고정한다.
2. 랙(RACK)에 보관 하며 한달에 1회 이상 청소한다. 음향 기기에 애정을 갖는 만큼 성능을 발휘한다.
3. 일정한온도가 유지 되는곳에 설치한다. 너무 춥거나 더우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관리자를 두며 사용 전에 미리 점검한다. 날씨와 집객에 따라 셋팅하여야 한다.
5. 3년 정도 사용하면 소모품을 교체한다. (마이크, 스피커, 마이크스탠드, 연결잭 등)
6. 스피커 및 앰프 추가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저항 및 출력을 계산하지 않고 연결하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
7. 사용 후 불륨을 다 줄인 후 전원을 차단한다. 그냥 전원을 차단하면 스피커에 무리를 준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모집구분: 지장암 - 남 0명, 여 0명. 사월 - 남 0명, 여 0명
근 처: 본인 거주지
문의: 050-5244-0108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개 천지조화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호대사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전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칠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경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문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삼당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

“천기도법” (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절인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물리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2004년 10월 17일

대한미륵보살님 위대한도량